"날로

『우리 6지구 의료보험조합으로서는 환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경험을 쌓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산 제6지구 의보조합 급여부장 鄭吉鎭씨는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지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염검사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한다.

『환경의 변화와 의식수준의 향상 덕분인지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간염검사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검사를 원하는 분들도 많읍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鄭부장의 모습 속에서 그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살고자 했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鄭吉鎭부장이 부산 6지구 의보에 몸을 담은 것은 77년 7월. 올해로 11년째 접어든다.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있기도 어렵지만, 그 안에서 누가 보아도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타성에 젖지 않고 항상 신선하고 논리정연하게 일을 해온 사람이 바로 鄭吉鎭부장이라는 것은 그가 동료들과 함께 이룩해 놓은 이번 환원사업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의료보험사업이 보험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보건예방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국민건강에 있어서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료보험 재정, 그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에도 많은 도움을 줄겁니다.』

鄭부장은 이지적인 눈을 밝게 빛내며 다부지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그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하게 된 간염검사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

향상되는 국민건강 지켜보는 것이 삶의 보람"

부산 제6지구 의보조합 급여부장 鄭吉鎭 씨

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라고 말한다.

이번 검사사업은 3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 70%정도 진행되었다는데, 鄭부장은 앞으로는 검사범위와 수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지구에는 의보가 모두 16개소가 있읍니다. 저희 6지구는 500여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곳은 아니죠 하지만 관리행정측면에서나, 어느 부분에서나 가장 앞서가는 조합을 만들겠읍니다.』라며 鄭부장은 자신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힌다.

그는 또 6지구 의보의 분위기를 자랑스럽게 말한다.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 말단직원까지 너나할 것 없이 건강관리사업에 관심이 높아,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거침이 없읍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저도 배우는 점이 많읍니다.』

그는 또『건협이 얼마나 성실하고신뢰할 만한 곳인지를 이번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기동성있게 최선을 다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하루하루 향상되어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즐겁다는 鄭吉鎭부장은 부인과 함께 2남2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범 가장이며 취미인 바둑은 수준급이라고.